

사회탐구 영역(윤리와 사상)

제 4 교시

성명

수험 번호

3

제 [] 선택

1

1. 다음 가상 편지를 쓴 고대 동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선생님께

'친척을 친애하는 데에 차등이 있고, 현명한 이를 존중하는 데에도 차등이 있다.'는 선생님의 편지는 잘 읽었는데, 저의 생각은 다릅니다. 우리가 사람을 두루 사랑하지 않고 차별하기 때문에 갈등과 전쟁이 일어납니다. 만약 온 세상 사람들이 모두 서로를 사랑한다면[兼愛] 나라와 나라가 서로 공격하지 않고, 집안과 집안이 서로를 어지럽히지 않을 것입니다. …(후략).

- ① 교리(交利)의 삶을 살기 위해 모든 방어 전쟁에 반대해야 한다.
- ② 친소(親疏)를 분별하는 사랑으로 천하의 이익을 도모해야 한다.
- ③ 별애(別愛)에 따라 자국과 타국의 차등적 대우를 허용해야 한다.
- ④ 인의(仁義)를 구현하기 위해 어떤 전쟁에도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 ⑤ 비공(非攻)을 실천하여 국가 간에 우호를 다지는 데 힘써야 한다.

2. 다음을 주장한 현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건강, 부, 학식과 마찬가지로 정직, 근면, 절제, 정의도 마치 그것들이 획득해야 할 고정된 목표를 표현하는 것인 양 소유되어야 할 선(善)들은 아니다. 그것들은 경험의 질적인 변화의 방향이다. 성장 자체가 유일한 도덕적 목적이다.

- ① 행위의 유용성과 무관한 옳은 행위가 존재한다.
- ② 옳은 행위를 규정하는 선형적 원리가 존재한다.
- ③ 도덕적 지식은 언제든 수정되고 재구성될 수 있다.
- ④ 도덕의 목적은 불변의 도덕 법칙을 발견하는 것이다.
- ⑤ 진보의 과정보다 정적인 성과나 결과가 더 가치 있다.

3. 중국 유교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갑: 마음은 영특(靈)하여 앎을 지니고 있고 세상의 사물에는 이치[理]가 있다. 다만 이치에 대해 아직 연구하지 않은 것이 있어 그 앎이 다 실현되지 못한 것이다. 앎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물에 나아가 그 이치를 궁구해야 한다.

을: 마음의 양지(良知)가 하늘의 이치이므로 마음 밖에 이치가 없고 마음 밖에 사물도 없다. 양지가 알지 못하는 것은 하나도 없으니, 내 마음의 양지를 각각의 사물에 실현하면 각각의 사물은 모두 그 이치를 얻게 된다.

- ① 갑: 사물의 이치를 탐구하여 자신의 앎을 극진히 해야 한다.
- ② 갑: 각각의 사물 속에 천리(天理)가 존재함을 깨달아야 한다.
- ③ 을: 바르지 못한 마음을 바로잡아[正] 마음을 온전히 해야 한다.
- ④ 을: 마음 밖에서 이치를 구해야 지선(至善)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
- ⑤ 갑, 을: 도덕적 앎[知]과 도덕적 실천[行]이 일치되어야 한다.

4. 그림은 중국 불교 사상가 갑, 한국 불교 사상가 을의 가상 대화이다. 갑,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頓悟)의 가르침을 듣고, 마음 밖에 의지해서 수행하지 않고 오직 자기의 마음에서 자신의 본성이 항상 바른 견해를 일으키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번뇌(煩惱)에 시달리는 중생도 단박에 깨달을 것입니다.

비록 본래 성품이 부처와 다르지 않음을 깨달았으나[頓悟], 나쁜 습관[習氣]은 한꺼번에 없애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깨달음에 의지해 나쁜 습관을 점진적으로 제거하여 공덕(功德)을 이루어야 합니다.



갑



을

- ① 갑: 경전 공부에 의존해야만 자성(自性)을 깨달을 수 있다.
- ② 갑: 수행이 부족한 중생들은 불성(佛性)을 형성하지 못한다.
- ③ 을: 깨달음 이후에도 선정[定]과 지혜[慧]의 수행이 필요하다.
- ④ 을: 자신이 부처임을 단박에 깨닫는 순간 모든 습기가 사라진다.
- ⑤ 갑, 을: 참선을 통해 고정불변한 실체가 존재함을 자각해야 한다.

5. 고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공통된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갑: 덕이 영혼 속에 있는 것들 가운데 하나이고 필연적으로 유익하다면 그것은 지식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영혼에 관련된 모든 것들은 지식이 더해지느냐 무지가 더해지느냐에 따라 유익하게도 유해하게도 되기 때문이다.

을: 덕에는 지성적인 덕과 품성적인 덕이라는 두 종류가 있다. 지성적인 덕은 대체로 교육에 따라 생기고 발전하므로, 경험과 시간이 필요하다. 품성적인 덕은 습관의 결과로 생기므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 보 기 >

- ㄱ. 덕을 갖추고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
- ㄴ. 덕이 무엇인지 알면서 악덕을 행하는 경우는 없다.
- ㄷ. 덕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성의 역할이 필요하다.
- ㄹ. 덕은 후천적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타고나는 것이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2 (윤리와 사상)

사회탐구 영역

6. 근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갑: 사람의 행위나 성품이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시인(是認)의 감정을 일으키면 선한 것으로, 부인(否認)의 감정을 일으키면 악한 것으로 간주된다. 도덕성은 판단된다기보다 오히려 느껴진다.
 을: 사람의 행위가 가져다주는 쾌락과 고통은 측정될 수 있다. 한쪽에서는 쾌락의 가치의 총량을, 다른 쪽에서는 고통의 가치의 총량을 합산해 보라. 만일 차감한 값이 쾌락 쪽에 기운다면 그것은 행위의 좋은 경향을 제시하는 것이 될 것이다.

< 보기 >

ㄱ. 갑: 도덕적 구별은 고통이나 쾌락이라는 감정에 의존한다.
 ㄴ. 갑: 사회의 행복에 기여하는 행위는 공감(共感)을 불러일으킨다.
 ㄷ. 을: 사회 구성원 전체의 행복을 증진하는 삶이 최선의 삶이다.
 ㄹ. 갑, 을: 감정과 이성 모두 도덕적 실천의 직접적인 동기가 된다.

- ① ㄱ, ㄹ ② ㄴ, ㄷ ③ ㄴ, ㄹ
 ④ ㄱ, ㄴ, ㄷ ⑤ ㄱ, ㄷ, ㄹ

7. (가)의 고대 동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 ~ C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가)	<p>갑: 사람은 누구나 타고난 바탕대로만 따른다면 선하게 될 수 있으니, 이것이 본성[性]이 선하다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하지 않게 되는 것은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것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을: 사람은 배고프면 먹고 싶어 하고 힘들면 쉬고 싶어 하는데, 이것이 사람의 본성이다. 그러나 배가 고파도 어른보다 먼저 먹지 않고 힘들어도 남을 대신해서 일하려고 하는데, 이는 인위[僞]에 의해 가능하다.</p>
(나)	

< 보기 >

ㄱ. A: 사람은 선천적으로 지닌 사단(四端)을 확충해야 한다.
 ㄴ. B: 누구나 지속적인 수양을 통해 이상적인 인간이 될 수 있다.
 ㄷ. B: 성현(聖賢)의 가르침에 따라 타고난 본성을 보존해야 한다.
 ㄹ. C: 모든 사람은 도덕규범을 알 수 있는 타고난 소질을 지닌다.

-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8. 현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갑: 인간은 스스로 신을 믿고 따르리라 결단을 내릴 때 그는 비로소 무력감과 허무함을 떨쳐 버리고 참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그리스도교는 주체적으로 되는 것을, 즉 진리 안에 주체적으로 되는 것을 가르친다.
 을: 인간이 정의되는 것은 인간이 먼저 세계 속에 실존한 이후의 일이다. 이처럼 인간의 본성이란 없다. 왜냐하면 인간 본성을 구상하기 위한 신이 없기 때문이다. 인간은 인간 스스로가 구상하는 무엇이며 스스로가 원하는 무엇일 뿐이다.

- ① 갑: 신 앞에 선 단독자로서 행동할 때 참된 실존을 회복할 수 있다.
 ② 갑: 결단의 상황에서 주체적 결단을 회피하면 절망에 빠지게 된다.
 ③ 을: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이기에 자유 그 자체도 선택할 수 있다.
 ④ 을: 인간에게는 고정된 본질이나 실현해야 할 정해진 목적이 없다.
 ⑤ 갑, 을: 선택의 상황에서 느끼는 불안은 삶의 주체성을 찾는 계기가 된다.

9. 사회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갑: 자유로운 사람이란 그가 그의 힘과 재치로 할 수 있는 것들에 있어 자신의 의지로 무슨 일을 하는 데 방해받지 않는 사람이다. 어떤 사람도 그의 행동에 간섭하지 않는 한 그는 자유롭다.
 을: 자유는 노예 상태의 반대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타인의 자의적 의지가 노출되고 타인의 처분에 따라 살아가는 것을 중대한 해악으로 간주한다. 자유의 조건은 타인의 자의적 권력에 종속되지 않는 사람의 지위에 근거한다.

< 보기 >

ㄱ. 갑: 개인은 외부의 방해가 없는 소극적 자유를 추구해야 한다.
 ㄴ. 을: 진정한 자유는 타인에 의한 자의적 지배가 없는 상태이다.
 ㄷ. 을: 법에 의한 지배를 거부함으로써 진정한 자유가 실현된다.
 ㄹ. 갑, 을: 자유는 타인의 직접적인 간섭에 의해서만 침해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0. 중세 서양 사상가 갑, 근대 서양 사상가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인간이 자연적 성향을 갖는 것은 자연법에 귀속된다. 인간이 이성애 따라 행위하려는 것은 옳바르다. 선은 행하고 증진해야 하며, 악은 피해야 한다. 이것이 자연법의 첫 번째 계율이다.
 을: 현명한 인간은 영혼이 흔들리지 않고, 신의 본성의 영원한 필연성에 의해 자신과 사물을 인식하며 참된 마음의 평화를 누린다. 신은 모든 것의 내재적 원인이지만 초월적 원인이 아니다.

- ① 갑: 인간이 제정한 자연법은 영원법에 기초해야 한다.
 ② 갑: 인간은 자연적 성향을 극복해야 영원법에 참여할 수 있다.
 ③ 을: 인간은 자유 의지를 발휘하여 신적 질서에 순응해야 한다.
 ④ 을: 인간은 신을 인식함으로써 자연의 필연성을 초월할 수 있다.
 ⑤ 갑, 을: 인간은 이성적 인식을 통해 신의 섭리를 파악할 수 있다.

[11 ~ 12] 갑, 을은 한국 유교 사상가들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갑: 정(情)은 하나인데 사단(四端)과 칠정(七情)이라고 하는 것은 오로지 이(理)만을 말한 것과 기(氣)를 겸하여 말한 것이 같지 않아서이다. 칠정은 사단을 포함하고 있고, 사단은 다만 선한 정(情)의 다른 이름일 뿐이다.
 을: 사단과 칠정은 모두 정이지만 이름을 달리하는 것은 나아가서 말하는 바가 같지 않기 때문이다. 사단과 칠정은 이와 기가 서로 발하는 것[理氣互發]이고, 주(主)된 바에 따라 이와 기로 나눌 수 있다.

11. 갑,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갑: 사단은 칠정을 겸할 수 있는 감정이다.
- ② 갑: 칠정은 기가 발하고 이가 타는 것이다.
- ③ 을: 사단과 칠정은 모두 기가 발한 것이다.
- ④ 을: 칠정은 사단과 달리 순전한 감정이다.
- ⑤ 갑, 을: 사단과 칠정의 연원은 각기 다르다.

12. 다음을 주장한 한국 유교 사상가가 갑, 을 모두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사단은 사덕(四德)이 될 수 있는 마음일 뿐이다. 성(性)은 선을 좋아하고 악을 부끄러워할 뿐이어서 사덕을 논할 때는 행하는 일(行事)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 그러므로 어진 행위를 한 뒤에야 어진 사람이 될 수 있고, 의로운 행위를 한 뒤에야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

- ① 사덕은 선한 행위의 실천으로 형성됨을 간과한다.
- ② 사단이 금수(禽獸)에게도 부여되어 있음을 간과한다.
- ③ 사덕은 선천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이치임을 간과한다.
- ④ 사덕이 선을 좋아하는 마음의 경향성[嗜好]임을 간과한다.
- ⑤ 사단은 사덕을 파악할 수 있는 실마리[緒]가 됨을 간과한다.

13. 그림은 사회사상가 갑, 을의 가상 대화이다. 갑은 긍정, 을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실업 문제와 소득 분배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조세 체계와 이자율 조절을 통해 시장에 개입해야 합니다. 이러한 포괄적인 투자의 사회화를 통해 소비 성향에 주요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완전 고용에 가까운 상태를 달성해야 합니다.



갑

실업 문제 해소가 우리 시대의 심각한 문제 가운데 하나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실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의 지출에 크게 의존하거나 시장을 대체하는 특별한 종류의 계획을 추진한다면 시장은 '노예의 길'로 들어설 것입니다.



을

< 보기 >

- ㄱ. 정부는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사업을 추진해야 하는가?
- ㄴ. 정부는 전면적 계획 경제를 도입하여 재화를 분배해야 하는가?
- ㄷ. 정부는 시장 실패를 유효 수요 창출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가?
- ㄹ. 정부의 기능을 축소하고 시장의 자생적 질서를 존중해야 하는가?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ㄹ
-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14. (가)의 갑, 을은 고대 서양 사상가들이고, 병은 근대 서양 사상가이다. 갑, 을, 병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 ~ F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가)	<p>갑: 우리의 주된 관심은 평온한 삶으로서의 행복이다. 여기서 말하는 평온함이란 어떤 상황에서도 동요하지 않는 정신 상태[apatheia]이다.</p> <p>을: 진정한 쾌락이란 육체에서 어떤 고통도 느끼지 않는 동시에 마음에서 어떤 불안도 느끼지 않는 상태[ataraxia]를 의미한다.</p> <p>병: 최대 행복의 원리에 의하면 행위의 궁극적 목적은 양과 질이라는 두 측면 모두에서 가능한 한 고통을 피하고 쾌락을 충분히 향유하는 것이다.</p>
(나)	

- ① A, F: 덕이 있는 삶을 위해 모든 정념을 제거해야 함을 간과한다.
- ② B: 평온한 삶에 이르기 위해 공적인 삶을 멀리해야 함을 간과한다.
- ③ C: 쾌락은 고통의 부재이며 인간이 추구해야 할 목적임을 간과한다.
- ④ D: 사회적 유용성의 중대 여부가 도덕 판단의 기준이 됨을 간과한다.
- ⑤ E: 행복 실현을 위해 이성을 따르는 삶의 자세가 필요함을 간과한다.

15. 사회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갑: 유토피아에서는 모든 것이 모두에게 속하기 때문에 공동 창고가 가득 차 있는 한, 누구도 개인적으로 일용할 것이 부족하지 않다. 또한 재화 배분은 공평하게 이루어지므로, 누구도 빈곤층으로 전락하지 않는다.

을: 공산 사회에서는 개인이 분업에 예속되는 상태가 소멸되며, 노동이 생활을 위한 수단에 그치지 않고 그 자체가 삶의 기본적 욕구가 된다. 생산력 또한 개개인의 전인적 발달과 함께 증가하고, 공동의 부(富)가 모든 원천에서 샘처럼 솟는다.

< 보기 >

- ㄱ. 갑: 이상 사회에서는 재화가 풍족해 결핍의 염려에서 벗어난다.
- ㄴ. 갑: 사유 재산권의 보장하에 재화를 공평하게 분배해야 한다.
- ㄷ. 을: 이상 사회에서는 재화를 각자의 필요에 따라 분배해야 한다.
- ㄹ. 갑, 을: 이상 사회에서는 국가가 모든 생산 수단을 관리한다.

- ① ㄱ, ㄷ ② ㄴ, ㄷ ③ ㄴ, ㄹ
-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4 (윤리와 사상)

사회탐구 영역

16. 다음을 주장한 근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이성의 참다운 사명은, 가령 다른 의도에서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그 자체로 선한 의지를 낳는 것이어야만 한다. 이 세계에서 또는 이 세계 밖에서까지라도 아무런 제한 없이 선하다고 생각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선의지뿐이다.

- ① 의무에 맞는 일체의 행위는 선의지에 의한 행위이다.
- ② 행위의 옳음은 그 행위를 낳는 의지에 의해 결정된다.
- ③ 용기, 결단성과 같은 기질상의 성질은 그 자체로 선하다.
- ④ 경향성으로부터 비롯된 행위는 도덕적 행위로 인정된다.
- ⑤ 선의지를 동기로 삼지 않은 행위도 도덕적 가치를 지닌다.

17. 근대 한국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갑: 일원(一圓)은 우주 만유의 본원이며, 모든 부처와 모든 성인의 궁극적 진리이며, 모든 중생의 본성이다. 이에 일원상을 신앙의 대상으로 하고, 정신과 육체를 균형 있게 발전시켜야 [靈肉雙全] 한다.

을: 만고의 원한을 풀고[解冤] 은혜를 갚아야 한다. 또한 상생(相生)의 도(道)로써 선경(仙境)을 열고 조화정부(造化政府)를 세워 하염없는 다스림과 말 없는 가르침으로 세상을 고쳐야 한다.

- ① 갑: 도학(道學)뿐만 아니라 과학의 발전도 추구해야 한다.
- ② 갑: 일상에서 종교적 수행과 사회적 실천을 병행해야 한다.
- ③ 을: 하찮은 신세를 지더라도 은혜를 잊지 말고 갚아야 한다.
- ④ 을: 신분에 의한 차별이 없는 평등한 사회를 지향해야 한다.
- ⑤ 갑, 을: 현세가 아닌 내세에서 지상 낙원을 실현해야 한다.

18. 다음을 주장한 고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에만 모두 '✓'를 표시한 학생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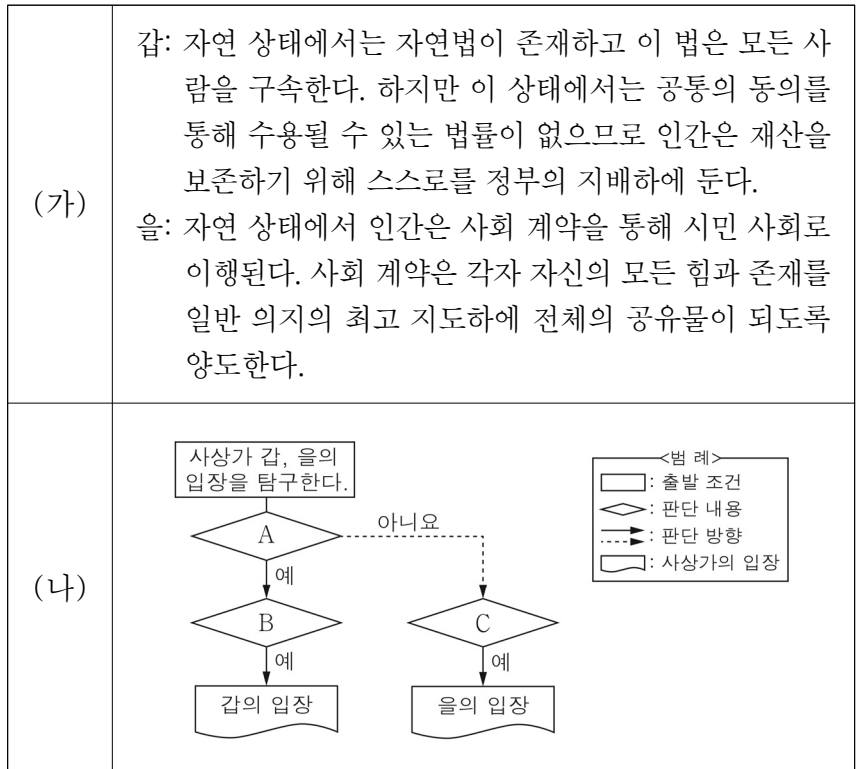
정의로운 인간이 되려면 영혼의 세 부분 모두가 다른 부분의 역할에 간섭하지 않고 각각 자기 일을 수행하여 전체적으로 음계의 세 음정처럼 어우러져야 한다. 한 국가가 정의롭게 되려면 성향이 다른 세 계층의 사람들 모두가 다른 계층의 일에 간섭하지 않고 자기 일을 충실히 수행해야 하며, 지혜, 용기, 절제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입장	학생	갑	을	병	정	무
정의로운 국가에서는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절제의 덕을 지닌다.		✓			✓	✓
정의로운 국가에서는 선의 이데아를 인식한 철학자가 통치한다.		✓	✓		✓	
정의로운 국가는 계층 간의 자유로운 역할 교환을 통해 실현된다.			✓	✓		✓
정의로운 인간이 되려면 영혼의 각 부분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	✓	✓

- ① 갑 ② 을 ③ 병 ④ 정 ⑤ 무

19. (가)의 사회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할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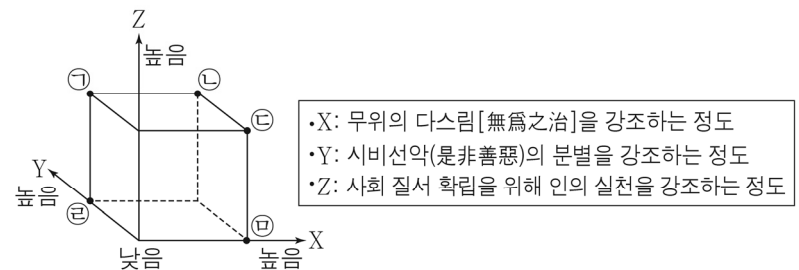
A ~ C에 들어갈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A: 개인의 자유와 권리는 본래부터 부여된 자연권에 근거하는가?
- ② B: 개인의 정치적 의무는 명시적 동의만으로 발생하게 되는가?
- ③ B: 자연 상태에서 자연법의 지배를 받지 않는 개인이 존재하는가?
- ④ C: 국가는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일반 의지를 대행하는 것인가?
- ⑤ C: 자기 자신의 의지인 주권은 권력과 함께 양도되어야 하는가?

20. 갑, 을은 고대 동양 사상가들이다. 갑의 입장에 비해 을의 입장이 갖는 상대적 특징을 그림의 ㉠ ~ ㉥ 중에서 고른 것은?

갑: 성인(聖人)이 백성을 덕(德)으로 인도하고 예(禮)로 다스린다면 백성은 부끄러워할 줄도 알고 잘못을 바로잡게 된다. 사욕을 이겨내고 예로 돌아간다면 인(仁)을 이룰 수 있다.
 을: 성인이 억지로 일을 하지 않았더니 백성이 저절로 감화되었고, 억지로 일을 꾸미지 않았더니 백성이 저절로 부유해졌다. 본래의 소박함을 유지하려면 인의(仁義)를 버려야 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확인 사항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십시오.